

첨삭답안	연세대학교 2012 인문 '낭비' 1번	작성자	김다람쥐
------	-----------------------	-----	------

[문항 1]

1. 글<가, 나>는 공통적으로 '낭비'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하지만 낭비를 대하는 태도에서 각각 다른 견해를 밝히고 있다. 우선, <가>는 낭비에 대해서 2.긍정적으로 인식한다. 사람은 자신의 에너지를 마음대로 소모하는 낭비를 한다. 하지만 그것은 무의미한 낭비가 아니다. 인간은 낚시를 하고, 축구를 하거나 게임을 하는 등 즐기기를 위한 행동, 즉 에너지를 소모하는 활동으로 도락을 발현시킨다. 이러한 소모는 인간의 도락적 자아본위에 입각한 긍정적인 낭비이다.

하지만 <나>는 낭비를 불필요한 대상으로 바라본다. 과학적 관리법은 어떤 작업을 함에 있어 불필요한 낭비 요소들을 제거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식을 취하는 것이다. 벽돌공의 작업 속도와 피로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제거하기 위해 과학적 관리법이 사용되는데, 이를 통해 작업자들의 육체적, 시간적 낭비를 줄인다. 그리고 이는 곧 전체적인 작업 효율의 향상으로 이어진다. 즉, 낭비의 단축이 능률의 상승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다>에서 망각이란, 기억하기 위해 존재하는 역설적인 것이다. 망각을 통한 원근 단축은 과거를 회상할 때, 불필요한 기억을 생략해서 기억 과정을 효율적으로 만든다. 이러한 점은 낭비를 제거함으로써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나>의 입장과 일맥상통한다. 그렇지만 비효율적인 소모조차 인간의 도락적 자아본위로 인식하는 <가>의 태도에서 볼 때 이러한 생략은 부정적으로 인식될 수 있다. 비록 불필요한 기억이더라도,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또 다른 즐거움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때때로 기억의 틈새에서 잊힌 것들이 되살아난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망각 과정이 늘 효율적인 방향으로 일어나지는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과학적 분석법을 통해 극단적인 효율화를 추구하는 <나>의 입장에서 부정적으로 인식된다. 하지만 도락적 자아본위를 중요시하는 <가>의 입장에서 이러한 재 기억화는 긍정적인 낭비로 인식될 수 있다. 과거를 회상함에서 불필요한 기억이 생각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을 생각하는 과정에서 어떤 도락적인 요소가 발현될 수 있다는 점은 <가>의 입장에서 충분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첨삭 포인트]

1. '제시문 <가, 나>는 낭비에 대해 서로 다른 관점을 지니고 있다'라고 한 문장으로 깔끔히 정리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문장 자체가 사실상 무의미한 서술이라 이런 것들은 고려하시면서 쓰셔야 합니다.

2. '긍정적'이라는 표현이 어색하긴 합니다. 여기서 굳이 '긍정적', '부정적'으로 나누지 않더라도, 제시문 비교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낭비를 본능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낭비 자체에 대해서 긍정적인 인식을 확실하게 전제한다고 볼 수도 없거든요. 뭐, 스스로 기뻐하는 것이기 때문에 낭비를 긍정적으로 본다는 것도 타당할 수는 있겠으나 애매한 표현을 쓸 필요까지는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 때문에 감점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냥 지적해본 거예요. 제시문의 내용을 그대로 끌어 와도 충분합니다. 이 문제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비교 준거를 잡으려고 노력하다가 비약이 일어날 수 있으니 조심하시라는 의도입니다.

A0 (합격권)

총평	전반적으로, 형식적 측면에서 첨삭을 보았습니다. 이 문제는 난이도가 낮습니다. 2번 문제와 같은 경우 굉장히 어려운 난이도에 속하지만, 1번 문제 자체는 난이도가 굉장히 쉽기 때문에 답을 다 맞춰 주셨어야 된다고 보는데, 전반적으로 합격권 답안에 속합니다. 2번 지적은 감점은 아니고 한번쯤 고려해보시라고 쓴 내용이고, 1번 지적(문장의 어색함)만 빼면 합격권입니다.
----	---

사전협의 없는 무단 도용, 복제, 배포를 금합니다.

환 논술 (煥 論 述)